"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"

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|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| 교육과학기술부 |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 | 보건복지부 | 여성가족부 |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"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"

❖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 장 이 정 한
서기관 김 형 광 ☎ 02-2110-7162
❖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과 장 이 장 로
사무관 강 준 모 ☎ 02-2150-7233
❖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과 장 최 병 만
사무관 임 성 진 ☎ 02-2100-6033
❖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과 장 전 영 웅
사무관 이 동 희 ☎ 02-3704-9233
❖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김 홍 중
사무관 최 정 수 ☎ 02-2023-7205
❖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황 윤 정
사무관 김 천 수 ☎ 02-2075-4562
❖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김 문 환
사무관 권 순 목 ☎ 042-481-4362

► 보도일시 : 9.28(수) 석간
<인터넷 9.28(수) 10:00 이후>
► 총 5 쪽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" 내년도 일자리 예산(안), 10조 1천억원 편성 "
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5천억원 확대된 9조 5천억원 -

□ 정부는 **2012년 「일자리」 예산(안)**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**10조 1천억원**을 편성

○ 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.1조원 기준 3.1%에 해당

○ 2011년 예산 대비 「일자리」 예산 증가율은 6.3%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(5.5%) 보다 0.8%p 높은 수준

(조원)

	'11 예산	'12(안)	증감률(%)
총 지 출	**309.1**	**326.1**	**5.5**
일자리 예산	**9.5**	**10.1**	**6.3**
(재정지원 일자리사업)	(9.0)	(9.5)	(5.6)

□ 2012년 일자리 예산(안)은 **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편성

○ '11.8월 현재, 11개월 연속으로 30~40만명의 취업자 증가('11.8월 49만명)가 이어지면서 **견조한 증가세 지속**

- **고용률·실업률**은 글로벌 **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**

  * 고용률(%) : ('08.8) 59.6 → ('09.8) 58.8 → ('10.8) 59.1 → ('11.8) 59.6

  * 실업률(%) : ('08.8) 3.1 → ('09.8) 3.7 → ('10.8) 3.3 → ('11.8) 3.0

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(2011 OECD Employment Outlook)

○ 하지만, **최근**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**경기 불확실성 증가**

  * IMF,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'11년 경제성장률도 0.5%p 하향조정(4.5% → 4.0%)

□ 이에 2012년 「일자리」 예산은

○ **'취약계층 지원 · 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 · 더 많은,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'** 예산으로 편성

-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,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**일자리창출에 최우선**

-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**「성장-고용-복지」의 선순환 고리가 '일'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**해 질 수 있도록 **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**

□ **첫째,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**

○ **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」**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한 **9조 5천억원**으로 편성

- 특히, 저소득층·노인·여성 등 **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확대** ('11년 2.4조원<54.1만개> → '12년 2.5조원<56.2만개>)

○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 **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요를 반영**

- **(청년) 창업지원을 강화**하고, **중소기업 청년인턴제**를 확대함과 동시에 **지역 중심의 해외취업지원사업(GE4U)**을 신규 추진
  - ▲ 청년전용창업자금(신규): '12년 2,000억
  - ▲ 중소기업 청년인턴제: '11년 1,456억(3.2만명) → '12년 1,539억(4만명)
  - ▲ 글로벌 청년취업(GE4U: Global Employment for U, 신규): '12년 22.5억

- **(여성)** '모성보호 육아지원' 확대 등 **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**하고, **시간제 일자리**창출 지원도 확대
  - ▲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('11년 401억 → '12년 458억)
  - ▲ 모성보호 육아지원: '11년 4,111억(11만명) → '12년 6,122억(13만명)
  - ▲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: '11년 68억 → '12년 84억

- **(고령자)** 은퇴인력 및 **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**하고, **임금피크제**('11년 125억 → '12년 139억) 지원도 강화
  - ▲ 노인일자리: '11년 1,486억(20만명) → '12년 1,666억(22만명)
  - ▲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: '11년 20억(1천명) → '12년 31억(2.5천명)

- **(장애인)**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,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**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**
  - ▲ 장애인일자리지원: '11년 273억(1만명) → '12년 300억(1.1만명)
  - ▲ 장애인고용장려금: '11년 1,226억(7만명) → '12년 1,322억(8.6만명)
  - ▲ 장애인능력개발지원: '11년 149억 → '12년 155억
  - ▲ 근로지원인 지원: '11년 18억 → '12년 22억
  - ▲ 장애인활동지원: '11년 1,929억(0.8만명) → '12년 3,099억(3.5만명)

• **(저소득층 등)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**하고, **자영업자**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또한 신규 반영

▲ 취업성공패키지: '11년 574억(5만명) → '12년 802억(7만명)

▲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(연간 100만원 → 200만원 지원 확대)

▲ 자영업자: 전직지원(신규, '12년 3억), 직업능력개발지원(신규, '12년 36억)

□ 둘째,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

○ LED, 신재생에너지 등 **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재직자 대상 향상 훈련 확대**

▲ 국가기간·전략직종훈련: '11년 564억(5.8천명) → '12년 895억(9.2천명)

▲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: '11년 67억(1.5천명) → '12년 154억(4.5천명)

▲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 지정 등 ('11년 1,229억 → '12년 1,398억)

○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·**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또한 확충**

▲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(IPP, 신규): '12년 10억

▲ 명장·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(신규): '12년 8억

▲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(신규): '12년 7억

□ 셋째, 「더 많은, 더 좋은」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

○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**일반 창업지원도 확대**하고, **문화·관광·글로벌·사회서비스**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

▲ 창업사업화 지원: '11년 788억(1.8천명) → '12년 988억(2천명)

▲ 문화산업: '11년 449억 → '12년 887억, 관광산업: '11년 18억 → '12년 115억

▲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파트너쉽(ODA, 신규): '12년 289억

▲ 사회서비스: '11년 1.3조 → '12년 1.5조

○ **'일하는 복지' 예산 확대**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

▲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(신규): 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,200억원, '12년은 670억)

▲ 이행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(적용대상 확대 등)

○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* 등 **조세와 예산을 연계,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 또한 제고**

* ('11년) 기업 투자금액의 1%한도 내에서 고용증가 1인당 1,000만원 (청년층은 1500만원)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

* ('12년): 전년대비 고용유지 시 투자금액의 2~3%를 공제하고, 고용증가 시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3% 추가 공제

□ 아울러, 지난 8.10일 마련한 「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

-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
- 유관사업간 「주관」부처 중심의 연계·조정 및 중복사업의 통·폐합 또한 지속 추진

□ 이상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「성장-고용-복지」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**「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'공생발전'」 구현에 뒷받침**

* 「일자리」 분야 2012년 예산(안) 주요내용: 별첨

「일자리」 분야
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

2011. 9. 28.

관 계 부 처 합 동

차 례

Ⅰ.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····· 1

Ⅱ. 2012년 「일자리」 예산안 모습 ····· 2

Ⅲ. 「일자리」 분야
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····· 4

1.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·····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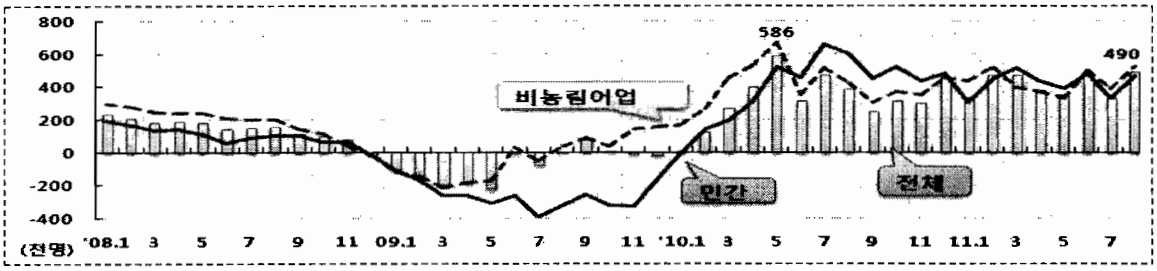
2. 미래 신 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 위한
투자 확대 ····· 8

3. 「더 많은, 더 좋은」 일자리 만들기
지원 강화 ····· 9

< 참고 > 「일자리」 분야 2012년 예산안 현황

Ⅰ.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

□ '11.8월 현재, 11개월 연속으로 30~40만명의 취업자 증가(전년동월대비)가 이어지면서 **고용동향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**



* 보건 및 사회복지, 도소매업, 운수업 등 민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

○ **고용률·실업률은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**

* 고용률(%) : ('08.8) 59.6 → ('09.8) 58.8 → ('10.8) 59.1 → ('11.8) 59.6
* 실업률(%) : ('08.8) 3.1 → ('09.8) 3.7 → ('10.8) 3.3 → ('11.8) 3.0

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(2011 OECD Employment Outlook)

○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, **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려운 상태**

* 상용직 증감(천명, 1~8월): ('08) 421 → ('09) 323 → ('10) 707 → ('11) 606
* 취업애로계층(천명, 1~8월): ('08) 1,517 → ('09) 1,906 → ('10) 1,998 → ('11) 1,915

⇨ 성장률 회복 등에 의한 효과가 일자리로 가시화되면서 그간 「일자리」 중심의 정책추진 성과 또한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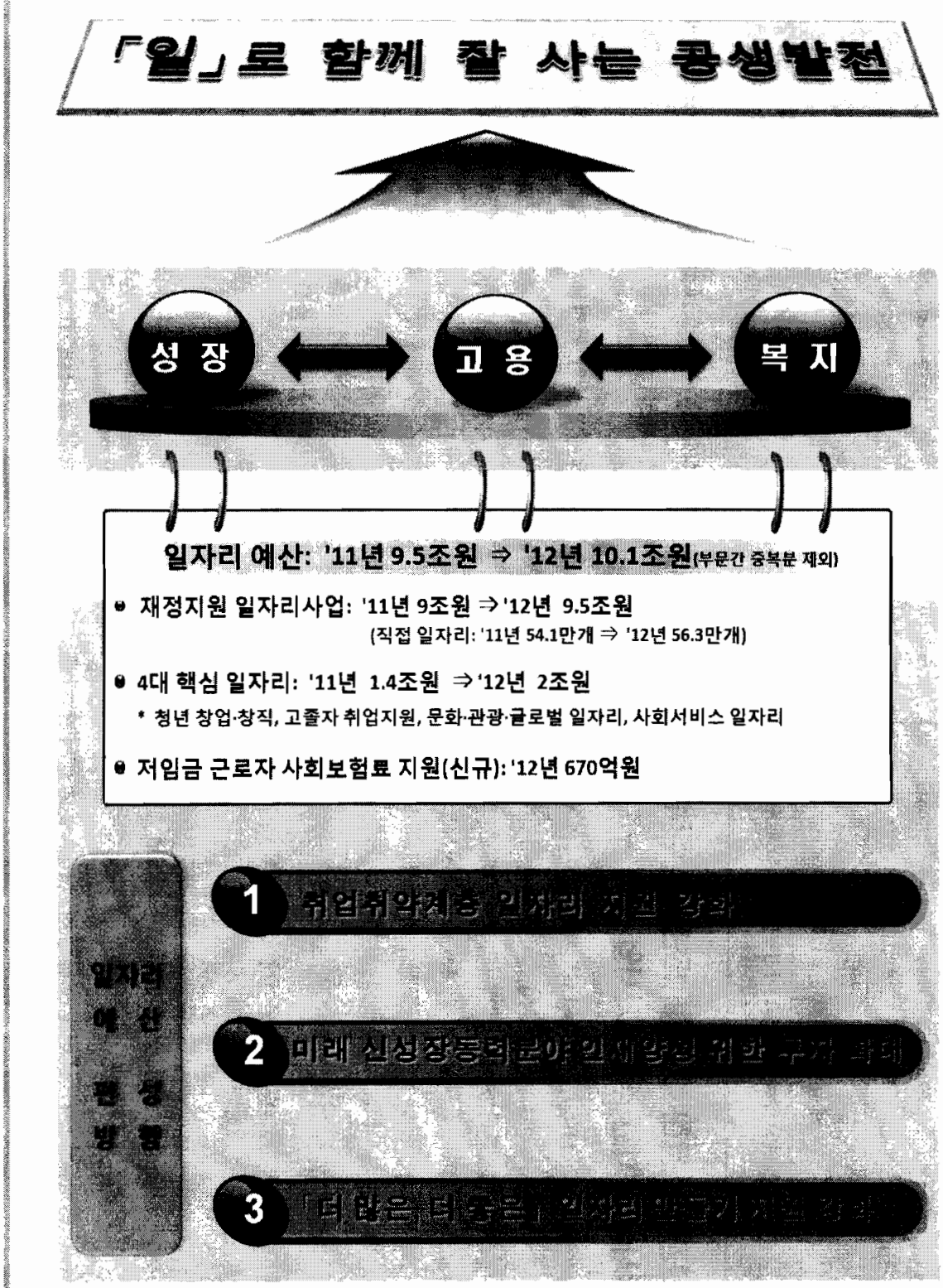
□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**경기 불확실성 증가**

* IMF,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'11년 경제성장률도 0.5%p 하향조정(4.5% → 4.0%)

⇨ '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**고용호조세 지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 긴요**

Ⅱ. 2012년 「일자리」 예산안 모습

【 개 관 】



< 기 본 방 향 >

❖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,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**일자리 창출에 최우선**

❖ 「성장-고용-복지」의 선순환 고리가 '일'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**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 또한 개선**

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

○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고,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충

○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 유휴인력,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2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

○ 신 성장산업 등 향후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강화

○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능인 우대 인프라도 확충

3 「더 많은, 더 좋은」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

○ 창의와 도전정신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동력과 영토를 확대

○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 정책지원 강화 등 근로연계복지 예산 확대

○ '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' 등 세제지원제도의 일자리 친화적 개편 강화

Ⅲ. 「일자리」 분야 2012년 예산 주요내용

1.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

<1> 재정지원 일자리: 취약계층 중심 확대 및 효율화 지속

○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**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0.5조원 확대** ('11년 9.0조 → '12년 9.5조)

- 저소득층·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**「직접 일자리」 확대** ('11년 2.4조 <54.1만개> → '12년 2.5조 <56.2만개>)

  ▲ 저소득층: 자활사업('11년 3,763억 <6.1만명> → '12년 3,969억 <6.6만명>)

  ▲ 노인·여성: 노인일자리('11년 1,486억 <20만명> → '12년 1,666억 <22만명>), 새일여성인턴('11년 79억 <3천명> → '12년 101억 <4천명>)

- **창업지원·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**(각 2천억)하고, 직업훈련·고용서비스 등은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소폭 증액 또는 감액

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[1] (억원) 】

구분	'11년		'12년		증 감
	예 산	사업수	예 산	사업수	
총 계	**89,574**	**183**	**94,530**	**183**	⬆ **4,956**
• 직접일자리	23,651	66	25,026	67	⬆ 1,375
	54.1만개		56.2만개		2.1만개
• 직업훈련	11,465	42	11,501	43	⬆ 36
• 고용서비스	3,792	38	3,701	37	⬇ △91
• 창업지원	1,937	15	4,096	15	⬆ 2,159
• 고용장려금	9,369	17	11,594	16	⬆ 2,225
•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	39,360	5	38,612	5	⬇ △748

1) 동 비교는 「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('11.8.10)」에 따른 기존 일자리사업의 재분류(일부 기존사업 제외, 누락사업 추가)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존 '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153개 사업, 8.8조원)과는 단순비교 곤란

○ 지난해 1차('10.7.6) 효율화에 이어 2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

- 중앙부처 사업의 재조정과 함께 **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**를 **자치단체**(공공근로 등) **사업까지 확대**

  * '11.6.30일 「고용정책기본법」 개정으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- **유관사업**은 협의체 운영 등 「주관」부처를 중심으로 **연계·조정**하고, **중복사업**은 지속적으로 **통·폐합**

-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마련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등 일자리사업에 대한 **체계적인 평가·조정 기반 확충**

  * 유형별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(고용영향평가와 연계)하고, 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('12년 연구용역비 2억원 반영)

<2>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① 청년: 창업지원 확대,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

○ 젊은이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**

▲ 청년전용 창업자금(신규): '12년 2,000억

프로그램	사업내용	규모
금융회사 매칭지원	민간 금융회사와 자금·컨설팅 매칭 지원 (민간자금은 정부지원금의 50% 이상 매칭)	800억 (융자)
융자상환금 조정	창업실패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 조정 (최대 2천만원)	500억 (융자)
직접투자	정부 지원자금을 개인의 엔젤투자금과 연계·지원 (창업리스크 분담)	700억 (직접투자)

* 기존 정책자금 운용방식(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)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하여 자금 및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

○ 「학교-자치단체」 협력을 통한 **지역 중심의 해외취업 지원사업**(글로벌 청년취업: GE4U*) **신규 추진**('12년 22.5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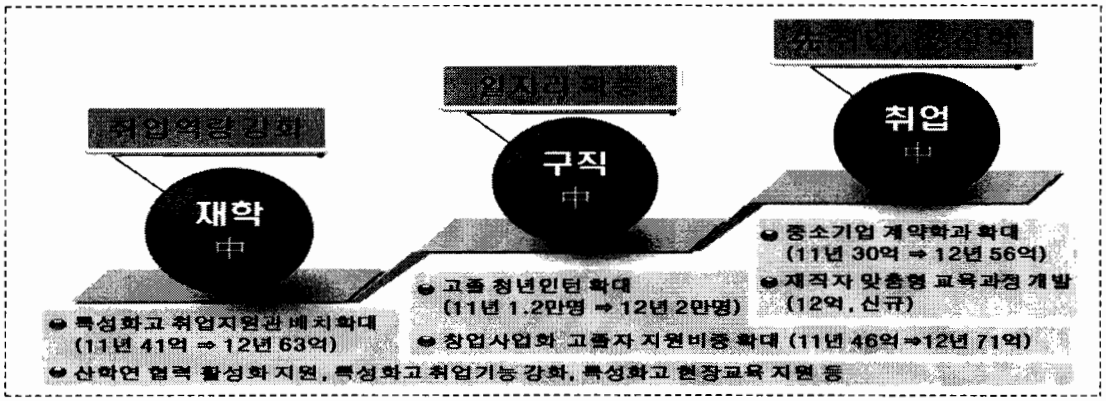
* Global Employment for U: 학교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액 대비 30% 이상 대응투자

○ '인턴 → 취업'으로 이어지는 취업경로 확산 등을 위해 **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**

* '11년 1,456억(3.2만명) → '12년 1,539억(4만명)

○ 특히, **고졸자**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후 학업 지원 위한 **3단계**(재학 - 구직 - 취업) **취업지원 예산 확충**

【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】



② 여성: 일 · 가정 · 생활의 조화

○ **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** 등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충

*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(규모별 월 120-480만원) 등 지원 ('11년 401억 → '12년 458억)

○ 출산 및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확충을 위해 **'여성' 친화적 고용장려금 확대**

▲ 모성보호 육아지원: '11년 4,111억(11만명) → '12년 6,122억(13만명)

○ 상대적으로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**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확대**('11년 68억 → '12년84억)

③ 고령자: 일할 기회 확대

○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**은퇴인력과 노인 대상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**

▲ 노인일자리사업 지원: '11년 1,486억(20만명) → '12년 1,666억(22만명)

▲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: '11년 20억(1천명) → '12년 31억(2.5천명)

○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**'임금피크제'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**

▲ 임금피크제 지원금: '11년 125억 → '12년 139억

④ 장애인: 함께 일하기 지원 확대

○ **장애인 일자리**를 늘리고,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**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 강화**

▲ 장애인일자리지원: '11년 273억(1만명) → '12년 300억(1.1만명)

▲ 장애인고용장려금: '11년 1,226억(7만명) → '12년 1,322억(8.6만명)

▲ 장애인능력개발지원: '11년 149억 → '12년 155억

▲ 근로지원인 지원: '11년 18억 → '12년 22억

○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 등이 **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확충**

▲ 장애인활동지원: '11년 1,929억(0.8만명) → '12년 3,099억(3.5만

⑤ 저소득층 등: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
○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**맞춤형 취업지원 확대**

▲ 취업성공 패키지: '11년 574억(5만명) → '12년 802억(7만명)

▲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(연간 100만원 → 200만원 지원 확대)

○ 또한, **자영업자**의 원활한 **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**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

▲ 자영업자: 전직지원(신규, '12년 3억), 직업능력개발지원(신규, '12년 36억)

2.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

<1> 신성장동력 산업 인력양성 확대

○ LED,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

▲ 국가기간·전략직종훈련 과정 확대:'11년 564억(5.8천명) → '12년 895억(9.2천명)

▲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확대: '11년 67억(1.5천명) → '12년 154억(4.5천명)

○ 공공훈련기관을 활용, 학과개편·신설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

▲ 폴리텍 학과개편(LED 등 15개), 전공심화 신설:'11년 131억 → '12년 167억

▲ 한기대 학과개편(신재생에너지 등 4개, 신규):'12년 12억

<2>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 직업능력 업그레이드

○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상 훈련확대

▲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(5개소) 지정 등 ('11년 1,229억 → '12년 1,398억)

○ 중소기업 자체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훈련 등 지원

▲ 고졸재직자 대상 신성장분야 등 계약학과 지원 등 '12년 90억

▲ 체계적현장훈련지원(S-OJT, 신규): '12년 21억, ▲HRD자문지원(신규): '12년 8억

<3>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·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확충

○ 기업요구에 맞는 인재양성 및 실력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

▲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(IPP, 신규): '12년 10억

▲ 명장·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(신규): '12년 8억

▲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(신규): '12년 7억

3. 「더 많은, 더 좋은」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

<1>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· 유망산업 지원 확충

○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**일반 창업지원 또한 확대**하고,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**수요자 중심으로 개편***

* 수요자(중기청 선정)가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·지원기관을 직접 선택 (현재는 대학·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자 모집·지원)

▲ 창업사업화지원: '11년 788억(1.8천명) → '12년 988억(2천명)

▲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: '11년 81억(3.2천명) → '12년 95억(4.5천명)

○ 영화, 만화, 에니메이션 등 창의적 **문화콘텐츠*** **분야** 및 창조적 관광사업 지원 확대 등 **관광산업 일자리 확충**

문화산업

'11년 449억 ⇒ '12년 887억

- 관련 산업 육성: 대중문화콘텐츠산업(11년 190억 ⇒ 12년 294억), 게임산업(11년 168억 ⇒ 12년 216억), 스마트콘텐츠산업(신규, 110억)
- 영화 해외진출 지원(11년 20억 ⇒ 12년 63억), 창작뮤지컬(신규, 30억) 및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(신규, 45억) 지원 등

관광산업

'11년 18억 ⇒ '12년 115억

- 창조관광사업 발굴·육성(신규, 43억),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(11년 18억 ⇒ 12년 72억)

○ G-20세대 등의 일자리 영토 확장을 위해 **ODA를 통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확대**

▲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파트너쉽(신규): '12년 189억(486명)

▲ 해외봉사단 파견: '11년 759억(1.9천명) → '12년 821억(2.1천명)

▲ ODA 청년인턴: '11년 69억(0.4천명) → '12년 86억(0.5천명)

○ **사회적기업 육성 등 一石三鳥*** 효과가 있는 **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**('11년 1.3조 → '12년 1.5조)

* 장애인·노인 등을 돌보는 일자리, 복지서비스, 부양가족의 일할 여건 제공

▲ 사회적기업 육성('11년 1,524억 → '12년 1,705억), 장애인활동지원('11년 1,928억 → '12년 3,099억), 아이돌보미지원('11년 402억 → '12년 423억) 등

<2>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**'이행급여*' 지급대상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,**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('12년 신규, 51억)

* 취업을 통해 탈수급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 및 의료 급여 제공 (원칙적으로는 탈수급시 모든 급여지원 중지)

	현 행		추 가
대 상	희망키움 통장 가입 취업 수급자	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자	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
지원조건	통장가입일부터 3년 이내 탈수급	취업을 통해 탈수급	취업을 통해 탈수급
지원기간	2년	3년	3년

○ 한편, **근로장려세제를 개편**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방법을 합리화

🗁 2011년 세제개편(안, '11.9.7)

	현 행	개 선
적용대상	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	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
지원조건	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,700만원 미만	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(0인: 1,300, 1인: 1,700, 2인: 2,100, 3인 이상: 2,500)
최대 지원액	최대 120만원	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(0인: 60, 1인: 120, 2인: 150, 3인 이상: 180)
지급방법	소득구간별로 「점증·평탄·점감」 구간 운영 * 점증(0~800), 평탄(800~1,200), 점감(1,200~1,700)	부양자녀 수에 따라 점증, 평탄, 점감 구간 차등

○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**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** (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,200억원, '12년은 670억)

🗁 '12년 사회보험료 지원방안(안)

지원대상	①5인 미만 사업장 ②최저임금 약 120%(12년 기준 월 보수총액 123만원) 이하 ③고용보험, 국민연금 적용대상자(사업주·근로자) *①~③ 동시 충족
대상보험	고용보험, 국민연금
지원수준	근로자, 사업주 부담분 각 1/3
지원시기	12년 상반기 2개 내외 지역 준비사업 실시 ⇒ 하반기 전면 시행

<3> 세제지원제도의 「고용」 친화적 개편

○ **임시투자세액공제**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**'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'로 전환**

- 아울러, **특성화고 졸업생 등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차등 지원**으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

🗁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(2011년 세제개편(안), '11.9.7)

대상	일반근로자	청년근로자	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학교 졸업생 <신설>
1인당 공제한도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
○ 한편,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**중소기업 친화적 세제지원제도 또한 신설**

🗁 2011년 세제개편(안, '11.9.7)

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	대상	청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
	지원	순증인원 기준, 청년(보험료 100%), 청년이외(보험료 50%)
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	대상	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(만15~29세)
	지원	취업후, 근로소득세 3년간 100% 면제

< 참고 1 >

「일자리」 분야 2012년 예산안 현황

(단위: 억원, 천명)

사업명	'11년(A)		'12년안(B)		증감(B-A)		
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%	인원
순 계	94,679		101,107		6,428	6.8	
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	89,574	541	94,530	562	4,956	5.5	21
• 직접일자리	23,651	541	25,026	562	1,375	5.8	21
- 청년	6,123	94	6,287	101	164	2.7	7
- 중장년 (여성·저소득층 등)	15,642	233	16,630	227	988	6.3	△6
- 고령·장애인	1,886	214	2,110	234	224	11.9	20
* 사회서비스일자리	13,116	167	14,575	175	1,459	11.1	8
• 직업능력개발훈련	11,465	-	11,501	-	36	0.3	-
• 고용서비스	3,792	-	3,701	-	△91	△2.4	-
• 창업지원	1,937	-	4,096	-	2,159	111.5	-
• 고용장려금	9,369	-	11,594	-	2,225	23.7	-
•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	39,360	-	38,612	-	△748	△1.9	-
2 4대 핵심일자리	14,397		20,003		5,606	38.9	
▪ 청년창업창직	2,350		4,953		2,604	110.8	
▪ 사회서비스일자리 (사회적기업포함)	5,114		6,450		1,337	26.1	
▪ 문화·관광·글로벌 일자리	1,305		2,170		865	66.3	
▪ 고졸자취업지원	5,629		6,429		801	14.2	
3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	-	-	670	-	670	순증	-

* 순계는 1·2간 중복분을 제외한 수치임